

기고

이수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명량을 바라보며 밝은 정치를 꿈꾼다

매칠 전 진도대교 주변을 지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 이 장소가 422년 전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을 이끌고 일본수군 133척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동안 무심히 지나다녔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숙연해졌다.

명량대첩 직전 조선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아군병선이 궤멸되어 겨우 12척의 배만 남은 암울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전쟁 피란민들은 자신들도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식량과 옷을 갖고 와서 우리 수군을 도왔고, 현지

주민들도 군량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 함께 싸웠다. 군민이 하나가 됐기에 기적과 같은 명량대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422년 전 어려운 전란의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을 도와 나라를 지켰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본의 침략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도 전 국민들은 단결을 하여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조금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치는 어떠한가. 작

년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해 초 발표한 부패 인식지수(CPI)가 54점으로 세계 180개 대상국가 중 51위를, 32개 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정치인 중에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약자를 위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는 누군가는 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있는 위인은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주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란 국민 개개인 이 신뢰·지지하는 정당에는 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하고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방법으로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직접 후원 및 기탁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명량해협 앞바다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재에도 이순신 장군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리더가 반드시 있다.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나서서 소중한 정성을 표출해 보자, 지금부터 실천해보자, 그러면 더 좋은 정치가 다가올 것이다.

社說

반려동물 버리는 일 없어야

광주 도심 곳곳에 멧돼지와 들개 등 야생동물이 출몰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 들개 5마리가 누비고 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들개들이 교내에서 길고양이를 죽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 달 25일에는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도로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멧돼지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실탄 10발을 쏘아살렸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따뜻한 기후와 낮은 적설량으로 멧돼지 생존율이 높아졌고 인간의 개발 행위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들어 멧돼지 도심 출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

발이 멧돼지 출몰의 이유라고 단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야생보다 잘 가꾼 농작물을 맛본 후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자주 내려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공격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며 신속한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동물 포획 건수는 2017년 5106건, 2018년 4554건, 2019년 3496건이다. 여기에는 개와 멧돼지, 고라니, 고양이, 뱀, 벌집제거 등이 포함된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상태다. 버림 받은 동물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보다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만큼 반려동물들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자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산은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오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산행 전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등산 전후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놀라, 관절에 무리가 가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산 코스와 시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가을은 여름과 다르게 해가 짧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우선 등산 코스를 파악하고 코스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일찍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여분의 옷과 비상식량 준비해야 한다. 등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체온 유지이다. 등산을 하다보면 땀이 나는데 요즘같이 바람이 찬 날씨에는 이동 중이거나 쉴 때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분의 옷과 열량 보충을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찻잎가무시증은 조심해야 한다. 찻잎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인데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찻잎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중에는 소매는 단

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넣어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산할 때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리막길은 오르막길 보다 걸음이 빨라지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더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을 산행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부상 없이 안전하게 산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란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병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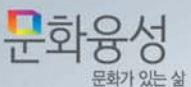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랜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